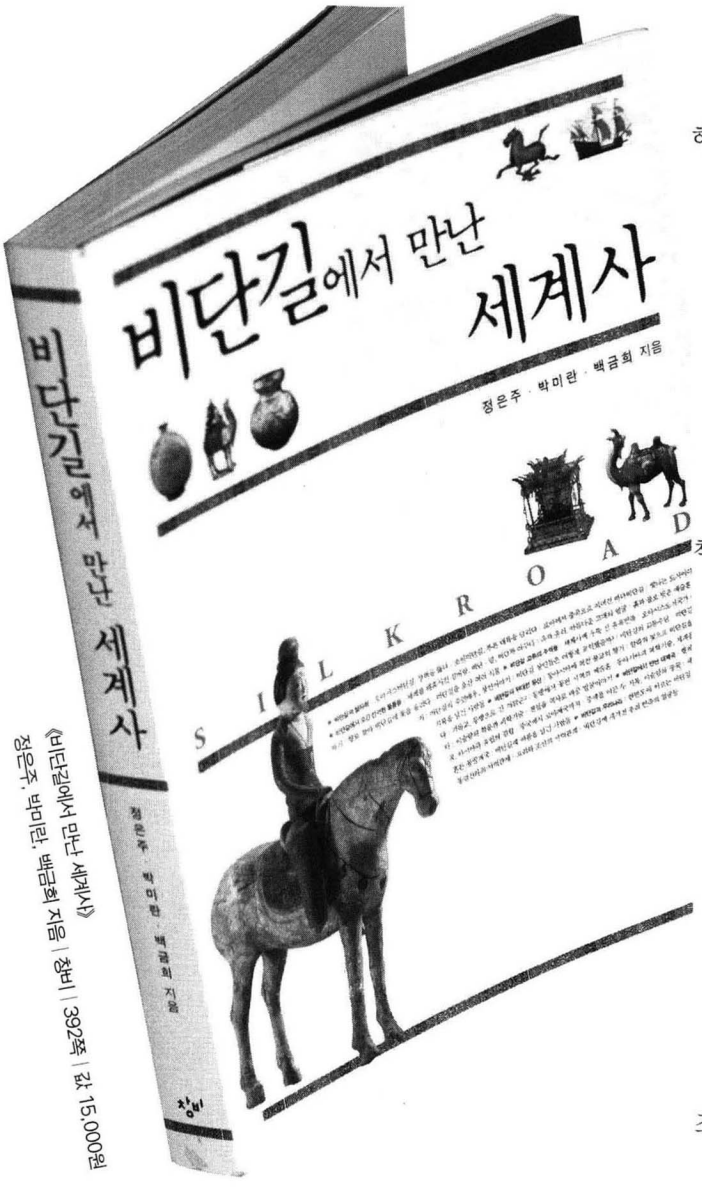
낭만의 이미지를 넘어 역사의 길로

글_ 이성호(배명중학교 교사)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
정은주, 박미란, 백금희 지음 | 창비 | 392쪽 | 값 15,000원

황홀한 노을빛이 물든 하늘 아래 시야를 압도하는 드넓은 모래사막, 그리고 그 유려한 능선 사이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한 무리의 낙타와 대상들…. 왠지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보고 있는 듯하지 않은가. 광활한 대자연의 위력과 고단한 여행, 그리고 소박한 안식까지, 원초적인 향수와 낭만을 자극하는 이런 장면이 비단길, 실크로드에 대해 우리가 통상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차용한 '실크로드 투어'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걸 봐도 그렇고.

하지만 '비단길'은 이런 단순화된 이미지로 남기에는 너무 오래되고 길고 넓으며, 또한 중요하다. 《비단길에서 만난 세계사》는 비단길에 대한 피상적이고 낭만적인 이미지를 넘어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차근차근 짚어주는 책이다. 게다가 그 독자대상을 청소년으로 잡았다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반가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낡고 왜곡된 세계사, 즉 유럽 중심, 중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 지구촌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우리의 눈'으로 역사를 새롭게 보겠다니 기대가 더욱 커진다.

책은 '세계사'를 제목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익숙한 연대기식 서술을 피하고 있다. 비단길이 오아시스비단길, 초원비단길, 바다비단길을 총괄하는 동서교류의 거대한 통로였음을 간단히 개관한 후에, 그 교류의 양상을 주제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2장 '비단길에서 오간 진귀한 물품들'에서는 비단과 말, 옥과 유리, 도자기와 향료 무역에 대해 살펴보고, 4장 '비단길의 위대한 유산'에서는 비단길을 통해 전파된 불교, 이슬람교, 동방기독교, 그외 예술이나 과학기술의 전파와 교류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식이다.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백과사전식이라 좀 무미건조해 보이기도 하고 이야기가 파편화되어 있다는 느낌도 가끔 들지만, 이 책이 청소년들을 위한 비단길 '입문서'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일목요연, 친절하다고 칭찬해 줄 일이다.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왔다 싶으면 책날개에 바로바로 설명을 달아주는 센스도 고맙고, 이런저런 유용한 자투리 지식을 '잠깐잠깐' 이라는 박스에 담는다든지, '한 걸음 더 자세히' 꼭지를 두어 '심화학습'을 유도한 점도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배려로 보인다. 게다가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지도나 도판은 책 읽는 재미를 한층 높여준다. 이 책을 위해 직접 그린 그림도 몇 개 보일 뿐 아니라, 적절하게 배치된 도판은 단순히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글을 보충하는 하나의 정보로 톡톡히 제 구실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을 쓴 이성호는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배명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세계사수업연구모임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편집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책임 편집했고 《어린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3, 4, 5권의 글을 썼다. 현재는 곧 출간될 《세계사 대안교과서》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입체적으로 구현된 지도는 비단길이 왜 그 경로를 따라야 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벗어나겠다는 저자들의 의지는 유목민족의 활약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3장 '비단길 교류의 주역들' 이나, 이슬람과 몽골 제국의 역할을 세계사적으로 부각시킨 5장 '비단길에서 만난 대제국' 에서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다. 약탈과 침략의 이미지로 덧칠된 유목민족들을 동서교류의 주인공으로 복원시킨 것도, 몽골의 유라시아 정복 이후 동서교류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교과서에서는 보기 힘든 발상의 전환이다. 더욱이 마지막 장은 '비단길과 우리나라' 를 주제로 하고 있어 '우리의 눈' 을 강조하는 저자들의 의도를 확실히 보여준다. 비단길을 한반도로까지 적극적으로 확장시킨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우리 역사가 '은둔' 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 있는,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였음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실 '유럽중심주의' 의 극복은 우리 세계사 교육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였고, 그 대안의 하나로 '교류사' 를 강조하는 방안이 부각되어 왔다. 이제껏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고 여겨졌던 각 지역 문화권은 통념과 달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활발히 교류해 왔고, 그 상호 교류에서 유럽이 차지했던 비중은 아주 미미했으며, 단지 아주 최근에 와서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임을 강조하여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몽골의 유라시아 정복 이후 '진정한 세계사' 가 시작되었다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유목민족이나 이슬람 세력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 책의 서술도 어느 정도 이런 시각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유럽중심주의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주체를 발굴해 낸 성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럽중심주의를 충분히 해체할 수 있는 시도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예를 들어 몇몇 교류의 주도 세력을 강조하는 것은 중심을 해체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중심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유목민족이나 몽골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들이 벌인 정복전쟁마저 미화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남는다. 몽골제국의 성립은 그 자체가 침략전쟁의 결과인데, 그것이 동서교류의 진전을 가져왔음을 강조하다 보면 전쟁은 불가피한 것, 혹은 역사의 진보를 가져온 진통쯤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닐까. '교류' 의 영향이 과대평가된 것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움도 계속 남는다.

교류가 각 문화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추론이나 단편적인 사례의 나열은 자칫 잘못된 역사상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동서교역의 주된 품목은 민중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음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세계화' 만이 살 길임을 강요하는 현재의 세계질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류의 진전, 세계화가 과연 선善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품어봄 직하다.

비단길의 쇠퇴와 새로운 모색에 대한 부분이 소략하게 처리된 것도 좀 아쉽다. 비단길의 경로를 한반도까지 확장하고 바다비단길까지 비단길의 일부로 포함시켰다면, 서술 시기도 좀더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화의 원정 이후 중국의 해금정책, 인도양 항로를 찾아온 유럽 세력,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은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사정, 그리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유럽의 침략정책 등까지 이야기가 이어졌다면, 비단길을 통해 세계사를 쓴다는 애초의 취지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싶다. 그랬다면 그동안 세계사에서 그야말로 '소외' 되었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인도 남부의 여러 지역에 대해 새롭게 조망해 볼 수도 있었을 테고.

굳이 몇 가지 트집을 잡았지만, 요즘 우후죽순처럼 쏟아져나오는 청소년 인문 교양서 대부분이 번역물이거나 흥미 위주라는 점에 견주어보면 이 책은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다. 비단길에 대해 이 정도 수준의 역사 입문서를 갖게 된 것에 고마울 뿐이다.

'뱀다리' -저자들이 밝히고 있듯 이 책의 상당 부분은 정수일 교수의 역저 《실크로드학》에 기대고 있다. '고전' 이 무수한 영감과 변주의 원천이 되는 어떤 것이라면 《실크로드학》은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셈이다. 이 책을 계기로 더 새로운 변주가 시도되고 더 다양한 버전이 나오기를 기대한다.